

2020년 10월 4일 “아브라함 이야기(5) 언약의 주를 만난 의인”(창 15:1-6)

성경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신실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에 감동을 받으면 나 또한 신실함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주님과 맺은 약속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변화입니다.

아브람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번 만났는데, 오늘 본문이 한 예입니다.

[1] 아브람의 정황 속에서

아브람은 **14 장**에서 연합군과 전쟁을 감행하여 승리했지만 그들의 군사력은 자기들과 비교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습격할 지 모르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죽고, 재산은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를 이을 아들이라도 있다면 유산을 주어 피신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럴 상속자가 없으니 가족의 존폐위기 앞에서 무서웠던 것입니다.

이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1 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나는 네 방패이고 너의 가장 큰 상급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상을 주시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아브람이 더 부아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부르실 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식은 안 주시고 다른 말씀만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람은 내면의 불안을 터뜨립니다(**2-3 절**).

이에 대하여 주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라고 못 박아 말씀하시고 밤하늘 아래로 데리고 나가셔서 바라보는 별의 무수함과 같이 그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때, 아브람의 내면에 일어난 경이,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자기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긍정의 비전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인격적 관계 속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6 절**,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주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합니다. 즉, 아브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옳게 반응했고, 이것은 주님과 진실한 교통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2] 인격적 만남

본문의 하나님과 아브람의 만남은 밋밋하고 평범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교우들과 교제할 때, ‘오늘 만남은 지금까지 가져온 여러 만남 중의 하나’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오늘 정말 통했고, 소통과 교류가 되는 만남’ 일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만남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상기시키는 구약 장면입니다. **15:6**의 주석인 **롬 4 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원리와 핵심을 공유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4:2-3, 23**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 들어갈수록 주님과 만남이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하며, 이것 없이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럴 듯한 포장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척할 필요도 없고, 만났다면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 자체를 더욱 추구하고 사모하게 되지, 그 만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고 만나면 믿음의 깊은 차원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아브람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믿음의 성품과 태도는 복음적으로 길러지는 과정에 초점이 있습니다. 좋은 성품, 좋은 태도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초점은 삶의 고민과 고난 속에서 아브람처럼 불안하고 부정하고 싶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독교 신앙을 걷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요 10:27)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름으로 주님의 영생을 얻고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요 10:10)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내가 아브람과 같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졌는데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느꼈을 때, 나는 주님께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2. 내가 믿음 없을 때에도 나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주님은 얼마나 더욱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